



2023.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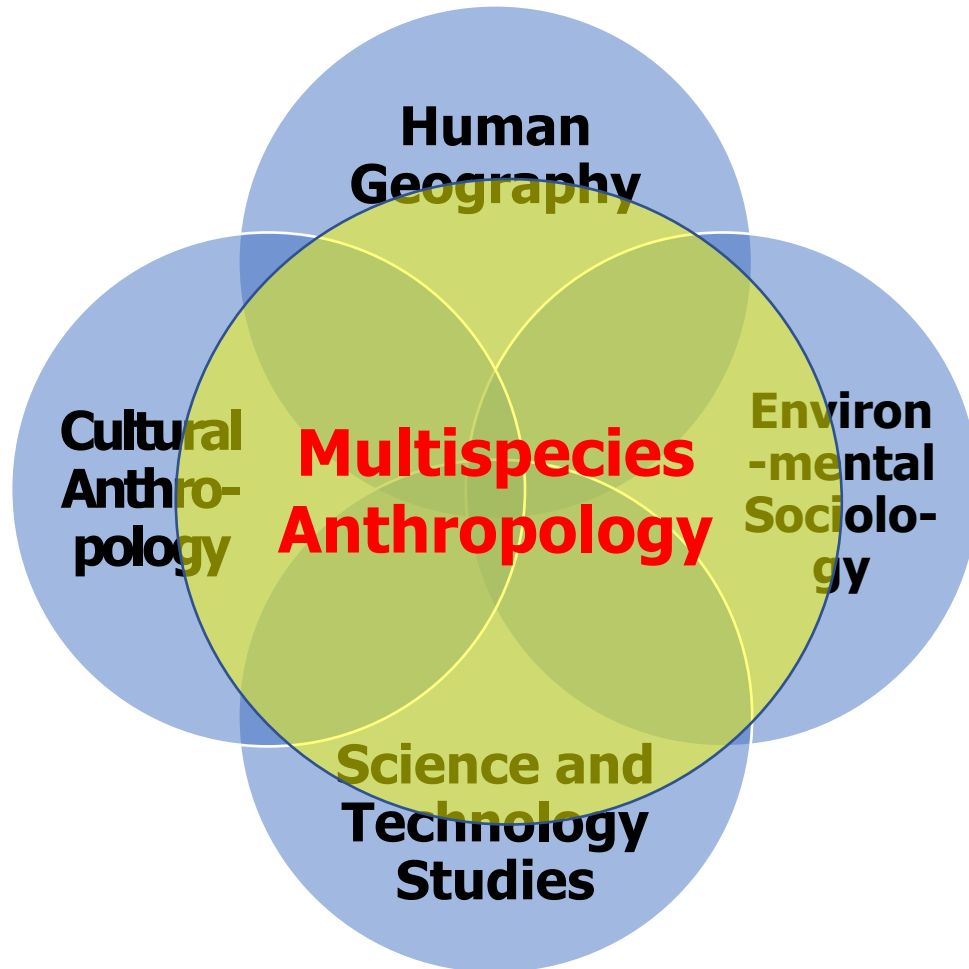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최명애 | 문화인류학과

myungae.choi@gmail.com

농부와 두루미 : 인간 너머의 인류학을 위한 탐색

Research Intere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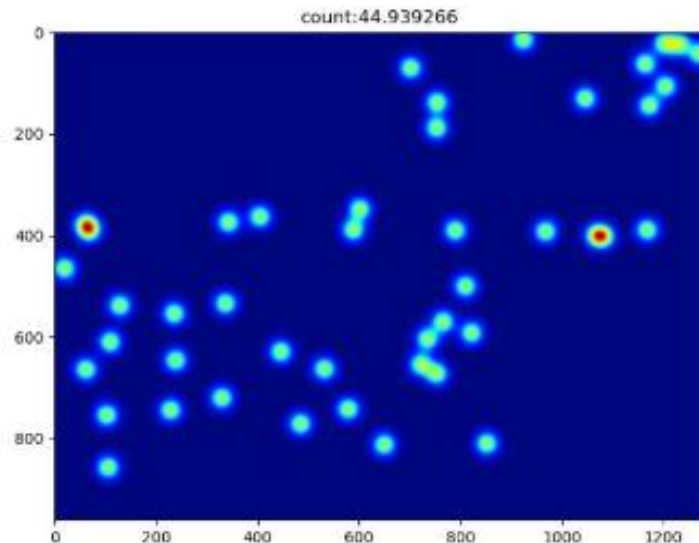


- PhD in Geography and Environment
- Research interests:
 - Nature conservation
 - Digital conservation
 - Animals
 - Ecotourism
 - Anthropocene

인류세의 과학기술과 자연 보전: DMZ 연구의 혁신

- 2019.9 – 2022.12...
- 철원 지역 두루미 보전

AI ecologist



다학제 융합 연구



농부-두루미 관계



2000 11. 7 (30)

3면

“철새보호지 지정 반대” 논 갈아엎어

철원평야 철새보호 비상

재산권 침해에 반발
주민들 “먹이 없앤다”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 등 매년 수십만 마리의 세계적인 희귀철새들이 도래하는 강원 철원군 철원평야를 농민들이 갈아엎어 철새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철원지역 농민과 사회단체로 구성된 '샘통철새도래지 지정반대추진위원회' 회원 200여명은 6일 철원을 관전리 노동당사 앞에서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철새보호지역 변경 및 확장계획을 전면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대형 트랙터 100여대로 천연기념물 245호로 지정된 샘통철새도래지 주변 농경지 수만평을 모두 갈아엎었다.

이에 따라 월동을 위해 철원평야를 찾은 각종 철새가 먹이를 구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눈이 내릴 경우 먹이 부족으로 탈진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민들은 앞으로도 트랙터를 동



강원 철원군 농민들이 6일 트랙터를 동원, 철원평야에서 두루미 등 희귀철새 도래지 일대의 농경지를 갈아엎고 있다. /철원=연

원, 정부가 철새보호지역 변경 및 확대안을 취소할 때까지 매일 수만 평의 논을 모두 갈아엎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철원 샘통지역이 철새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불가능해져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게 된다”며 “주민과 협의없이 추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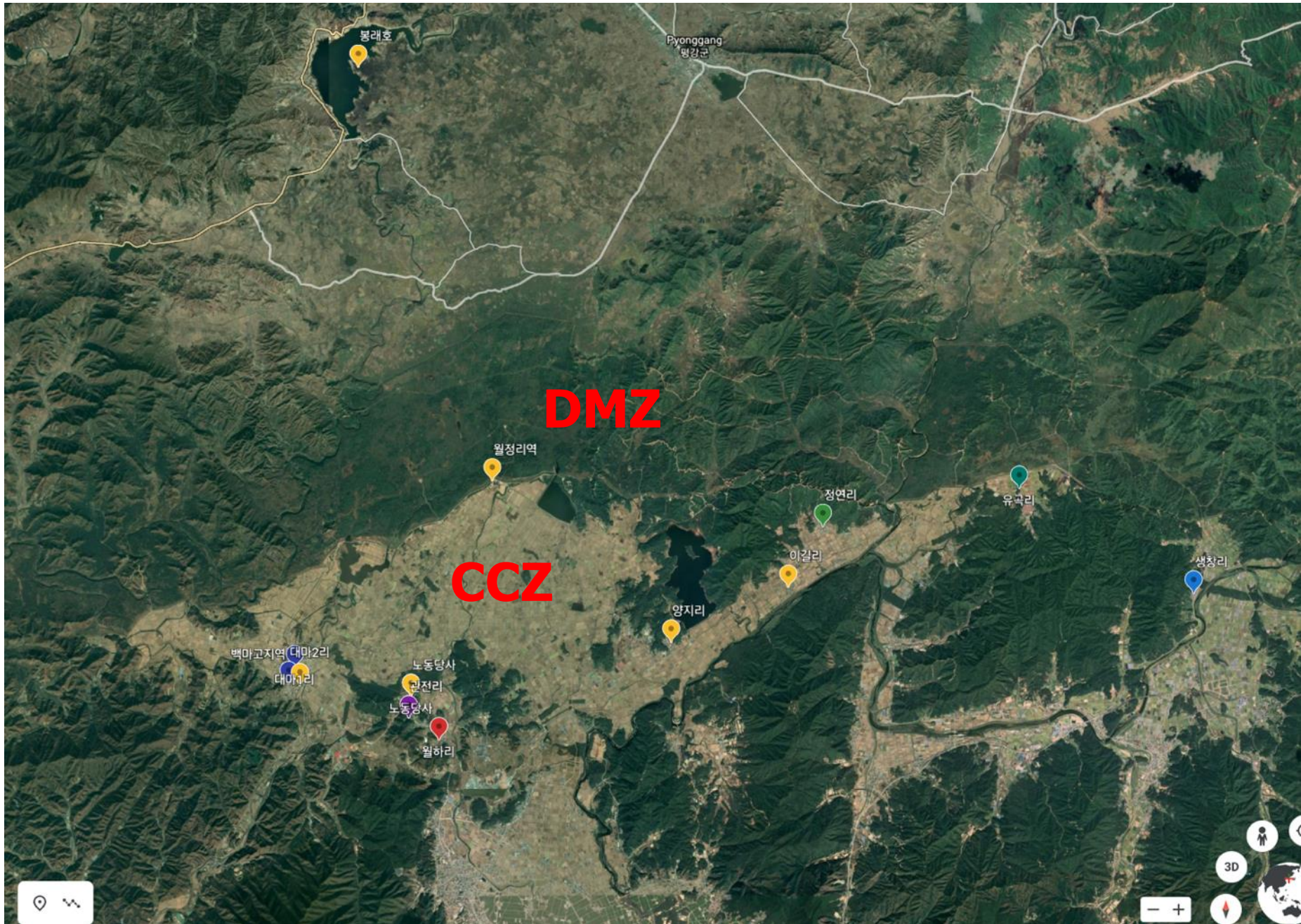
고 있는 철새보호지역 변경 및 확장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1973년 철원을 천통리 샘통 일대 철새도래지 12만평을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최근 지역 지정이 잘못된 것을 밝혀내고 인근 농경지 12만499평으로 보호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곽영승기자 yskwak@hk.co.kr

I. 냉전이 만든 '우연한' 자연

산업적 농경 / 재야생화 / '고난의 행군'



‘철의 삼각지대’ -
철원, 김화, 평강



민통선 지역의 산업적 농경

- 1960년대 이후 민북마을 농경지 개발 (기계, 품종개량)
→ 두루미 먹이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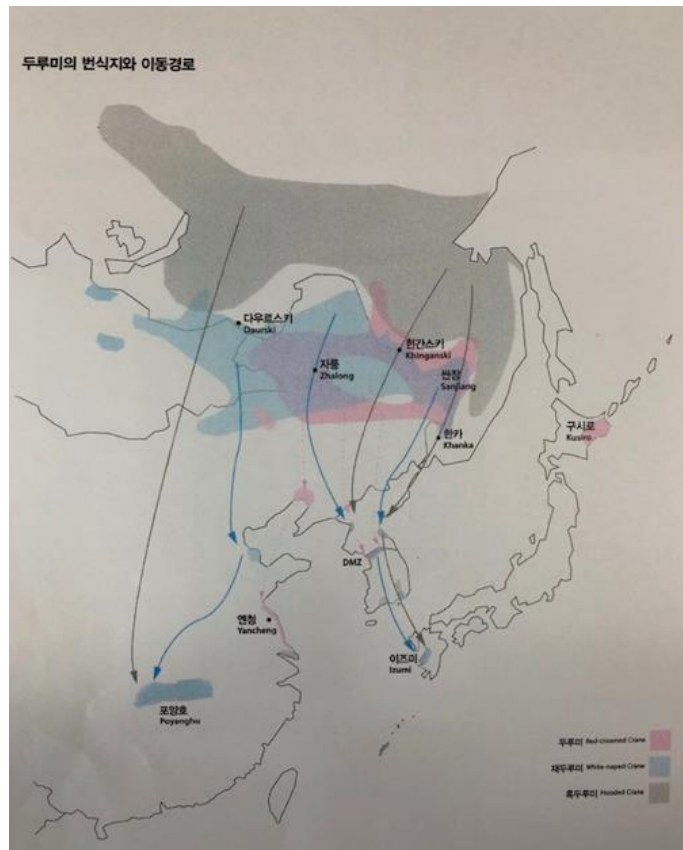
DMZ의 '재야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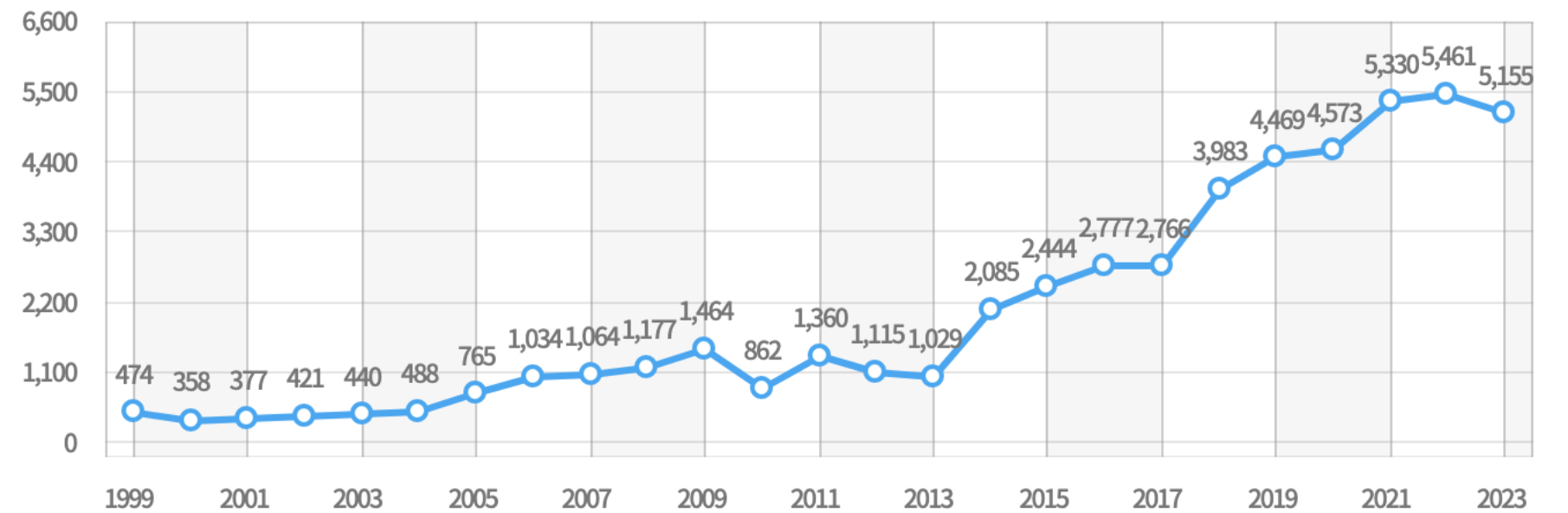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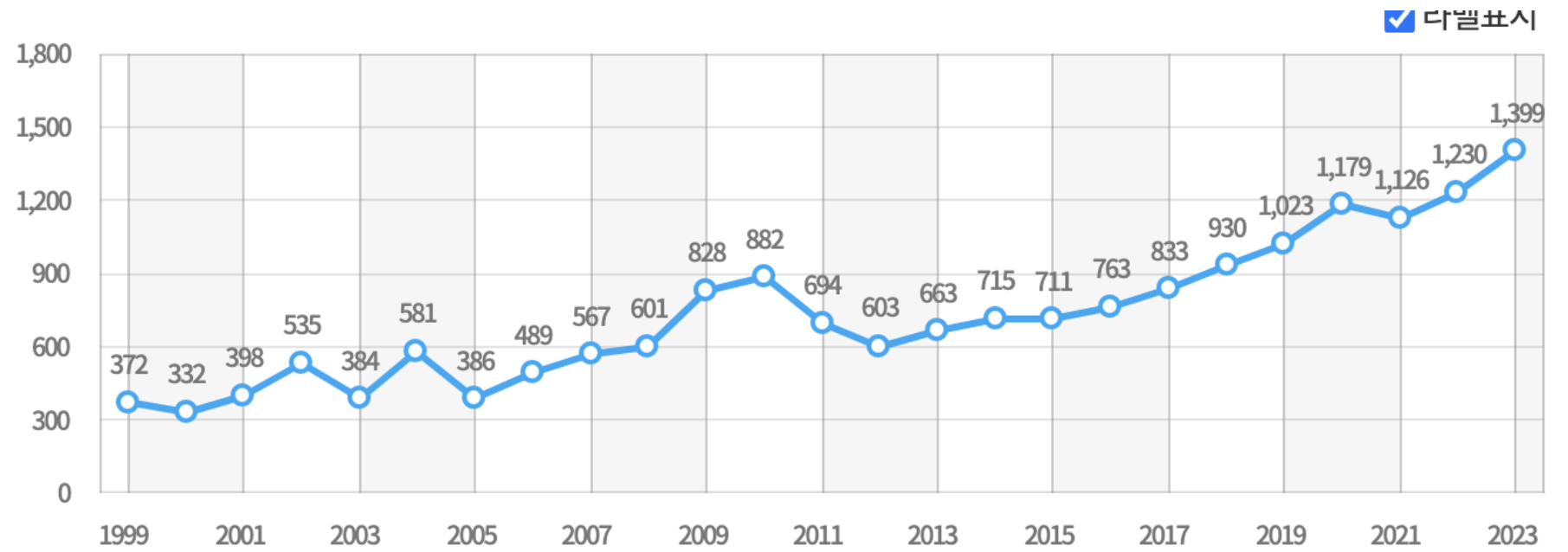
- 인간의 일상적 개입 차단으로 과거 농경지 및 마을의 식생 복원
- 두루미 서식지 제공



북한 '고난의 행군'

-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기근과 두루미의 '탈북'





II. 변화하는 두루미-농민 관계

박해 / 환대

박해

- 보호지역 지정 우려로 멸종위기종 쫓아내기

12 1997년 5월31일 토요일

월일군민방면

한겨레

“철새들 아예 쫓아버리겠다”



↑ 지하수가 생물이 연중 15도 인체의 온도를 유지해 겨울에도 얼지 않아 새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습지는 철새도래지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다.
- 철원군 곳곳에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 철새들의 낙원인 철원평야가 민통선을 넘어 거침없이 펼쳐져 있다.

촬영/이진홍 기자

재두루미 수난 독크물에 있던 회생

【파주·철원=권〓】전 세계적으로 3천여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천연기념물 제203호 재두루미 8만개가 잇따라 밀렵꾼들의 독크물에 중독돼 죽는 등 수난을 당하고 있다.

18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 민통선북방지역 육군모부대 근처에서 지난 13, 14일 이틀에 걸쳐 두루미 3만개가 약물에 중독돼 쓰러져 있는 것을 군인들이 발견, 서울대병원 동물병원에로 옮겨 치료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한남조류보호협회(회장 金成萬)회원들이 강원 철원군 민통선안 철원평야 생태지역에서 5, 6m간격으로 논바다에 고개를 박아 채 부린에 거품을 물고 죽은 두루미가 총 4마리를 발견했다.



인터뷰/민통선안 30년농사 황윤필씨

민통선 안에 사는 한 농민은 “추수 뒤 논에 농약을 뿌려버리겠다”는 말까지 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 지역 환경단체들은 발간 동물 구출 운동이다. “농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보호가 없다면 철새들이 이만큼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올 겨울에는 과연 몇 마리나 찾아올지 걱정입니다. 폐작업을 당장 중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폐작업을 당장 중지할 경우 전체 낱알의 약 5%가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땅을 갈아엎을 경우 이런 비율들이 땅 속에 묻히게 된다. 심지어

철원군 안에는 사는 한 농민은 “추수 뒤 논에 농약을 뿌려버리겠다”는 말까지 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 지역 환경단체들은 발간 동물 구출 운동이다. “농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보호가 없다면 철새들이 이만큼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올 겨울에는 과연 몇 마리나 찾아올지 걱정입니다. 폐작업을 당장 중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폐작업을 당장 중지할 경우 전체 낱알의 약 5%가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땅을 갈아엎을 경우 이런 비율들이 땅 속에 묻히게 된다. 심지어

철원군 안에는 사는 한 농민은 “추수 뒤 논에 농약을 뿌려버리겠다”는 말까지 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 지역 환경단체들은 발간 동물 구출 운동이다. “농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보호가 없다면 철새들이 이만큼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올 겨울에는 과연 몇 마리나 찾아올지 걱정입니다. 폐작업을 당장 중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폐작업을 당장 중지할 경우 전체 낱알의 약 5%가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땅을 갈아엎을 경우 이런 비율들이 땅 속에 묻히게 된다. 심지어

환경부 “영농규제완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환경부는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였던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주민 생활의 질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먼저 보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이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두었다. 이는 농민들이 추수 뒤 철새의 먹이감으로 남겨두는 곡식 스랑악을 적게 쓸 경우 줄어드는 수익에 대해 일부 보상을 받는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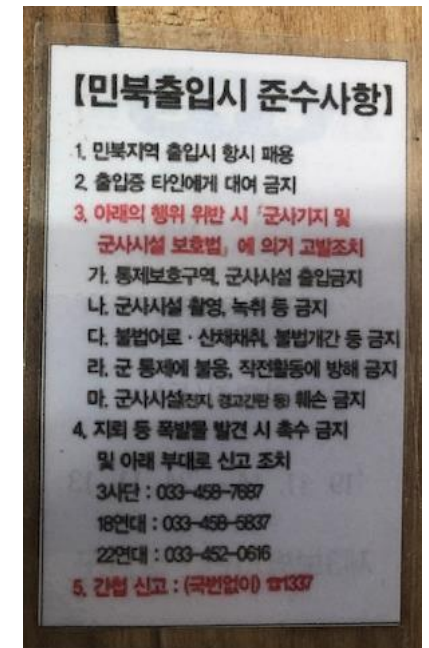
“사람부터 먼저 살려야지”

호시성법에 따라 군 자연생물 지정을 한다는 이유에서 변변한 농가도 보령창고도 지을 수 없다. 때문에 농지는 드물어져 농가계를 매달고



“철원 농민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개패를 달고 군인이 주도하는 세상을
살아왔고, 과거에는 군인에게
끌려가서 ‘뺏따’도 맞았습니다. 또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우리 군민은
앞이 캄캄한 거예요”

(백00, 70대)



“환대 Hospitality”

(van Dooren, 2019)

- 먹이주기, 무논조성, 벼짚존치



Van Dooren, T. 2019. *The Wake of Crows: Living and Dying in Shared Worlds*. Columbia University Press.

- 철원 DMZ 두루미 생태관광 협의체
-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군 지회
- 두루미 곳간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 (사)한국두루미보호협회
- 두루미 학교
- 두루미와 농사짓는 농부들 (준)

- 국제 두루미 센터 (철원군)
- 철원군청 DMZ 두루미 관광계



III. 농부들은 왜?

두루미 생태관광/ 두루미 쌀/ 두루미 애착

두루미 생태관광

- 관광 자원으로 두루미의 가치 상승
- 안보관광에서 생태관광으로



두루미 생태관광

- 정치적 생태적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 남북관계 변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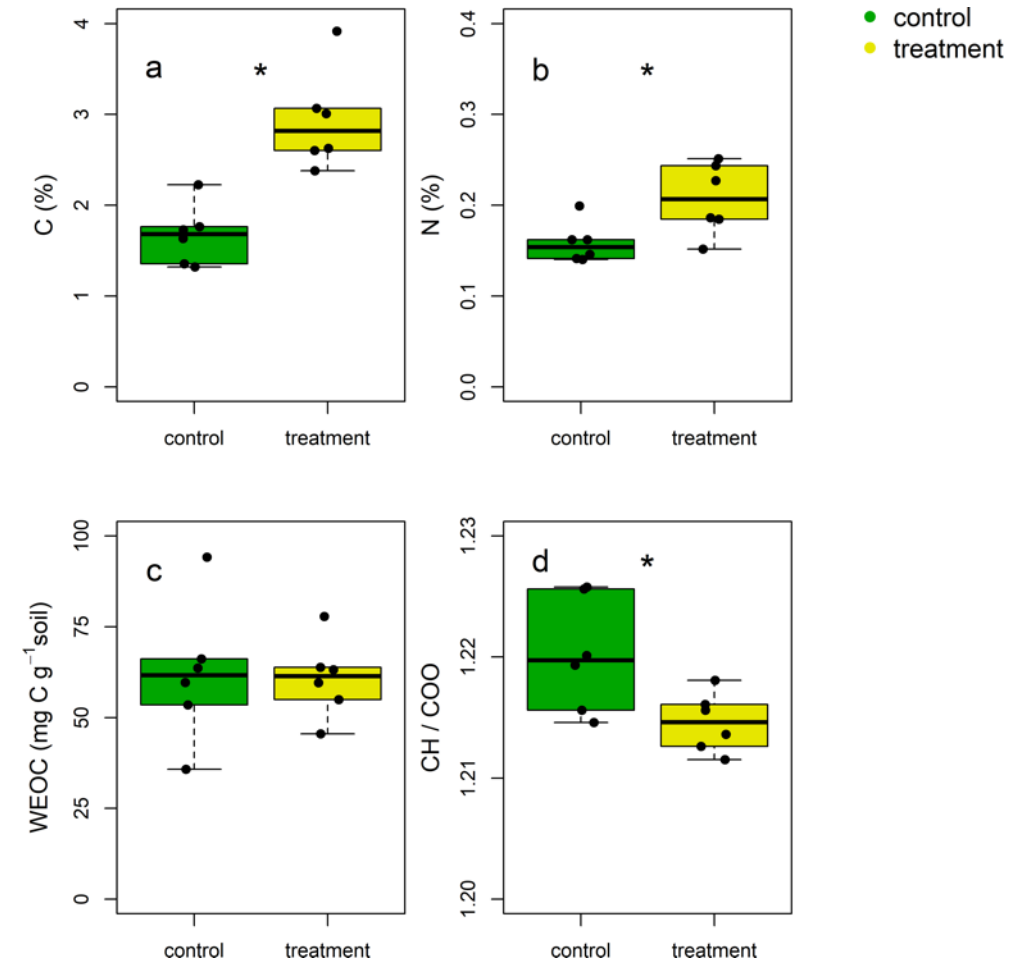
두루미 쌀

- 지역 농산물 브랜드로서의 두루미



두루미 쌀

- 두루미 활동이 토양 생태계 및 쌀 품질에 갖는 긍정적 역할 강조
- 두루미와 농사짓는 사람들(준)



두루미 애착

- 두루미와의 신체적 & 정서적 교류로 애착 형성

“어느 겨울에 눈이 오고 콩콩
얼었는데, 두루미들이] 발톱이
빠지도록 언 땅을 파고 있는거야.
측은했지. 트랙터에다 매달아서
[먹이를] 뿌려줬어. 그게 먹이원이
되는거야. 지금까지 한 20톤 정도
뿌려준 거 같애.”
(서OO, 60대)



(Photo: 이기섭)

IV. 농부들은 왜? 인류세의 취약성과 협력적 생존

취약성의 공유

- 민통선 북상 & 쌀 농업의 몰락
→ 쌀에 의탁한 농민과 두루미의 생존 위기

“농민과 두루미가 똑같아졌다”
(김OO, 60대)



(Source: 유승화)

두루미 보전과 농업

- 논이 있어야 두루미도 있다 → 농업의 보전적 가치 강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를 통한 지원



생물다양성과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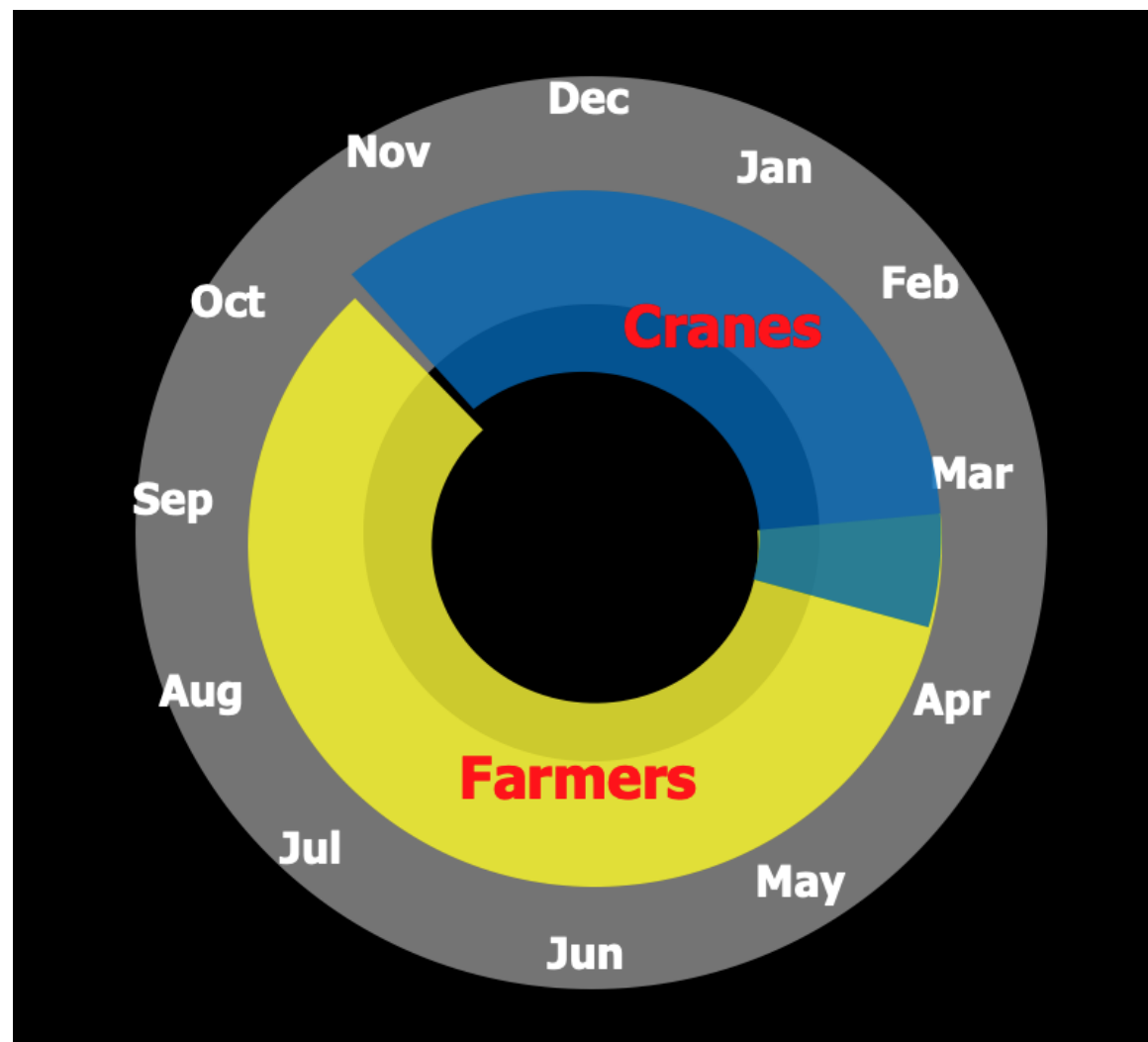
- 벼짚존치, 무논 조성을 통해 논의 생물다양성 재발견
- 근대적 '쌀공장'에서 '생명의 터전'으로 → 다종적 살림의 모색



인류세의 “협력적 생존”

(Tsing, 2005:2)

- 두루미와 농부의 논 공유하기



Tsing, A. L. 2015.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On the Possibility of Life in Capitalist Rui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철원 못자리 식당 이야기 – 인간이 교란한 농부와 새의 리듬 회복



(사진: 한국농정신문)